

인공지능 전환기(**AX**)의 국가 전략과 사회적 대응: 박태웅의 **AI** 강의 **2025**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

서론: 인공지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과 **2025**년의 좌표

2024년 말에서 2025년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의 단계를 넘어, 문명의 기초 설비이자 사회 운영의 근간인 운영체제(OS)로 진입하는 결정적 전환기로 기록될 것이다.¹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분석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과 삶에 급격히 파고드는 현상을 '견잡을 수 없는 변화'로 진단한다.¹ 그가 제시하는 통찰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더 이상 '모니터가 붙은 라디오'와 같은 과도기적 형태가 아니라, 매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¹

이 보고서는 박태웅 의장이 제시한 '**AI 6대 트렌드**'를 기술적, 사회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그가 주장하는 교육 혁명과 인문학의 역할,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한 '**AI 맨해튼 프로젝트**' 제안과 공공 부문의 **AI 전환(AX)**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보강하는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⁴ 인공지능 전환(**AX**)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⁶

제1장 **2025**년 인공지능 **6대** 트렌드의 기술적 지평과 사회적 함의

박태웅 의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화될 여섯 가지 핵심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방식 자체가 재편됨을 의미하며, 각 트렌드는 상호 연결되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형성한다.¹

1. 운영체제로서의 인공지능 (**AI as OS**): 인프라의 거대한 통합

'운영체제로서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개별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넘어, 모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연동되는 기반 플랫폼이 된다는 개념이다.¹ 과거 PC 시대에 윈도우(Windows)나 맥 OS(Mac OS) 위에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구동되었듯, 미래에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과 연동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³

이 변화의 핵심은 '연동성'과 '중심성'에 있다. 2025년 말에 이르면 AI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인공지능이 기술적 '액세서리'에서 '필수 인프라'로 격상되었음을 시사한다.³ 이는 개발자들에게는 AI 중심의 아키텍처 설계를 강요하며,

사용자들에게는 통합된 AI 경험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⁸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Copilot)을 윈도우 시스템 전반에 이식하는 행보는 이러한 'AI as OS' 전략의 실질적인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⁸

2. 맥락 인터페이스 (Contextual Interface): 검색의 종말과 직관의 시대

맥락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분류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현재의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¹ 기존의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명령(Keyword Search)에 의존했다면, 차세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작업 흐름, 화면 내용, 과거 이력을 종합하여 '의도'를 파악한다.⁹

이러한 인터페이스 혁명은 인지 부하의 획기적인 감소를 가져온다. 계층적 접근 방식(파일 탐색기 등)이나 구글·네이버 식의 키워드 매칭은 더 이상 주류가 아니게 되며, 사용자와 화면을 공유하며 맥락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 보편화된다.⁹ 이는 정보를 더 이상 분류하거나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의미하며, 인간의 뇌가 정보 탐색에 소모하던 에너지를 창의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¹

3. 파트너로서의 인공지능 (AI as a Partner): 협업의 새로운 정의

인공지능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작업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¹ 인공지능은 인간이 어렵다고 느끼는 패턴 인식 및 데이터 종합과 같은 복잡한 작업(에세이 작성, 이미지 생성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보조 지능 역할을 수행한다.¹¹

이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실행자'에서 '편집자'이자 '판단자'로 변화한다. 인공지능이 초안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인간은 그 결과물의 윤리적 적절성, 창의적 완성도, 사회적 맥락을 최종적으로 검증한다.⁹ 이러한 파트너십의 성패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¹²

4. 멀티모달 (Multimodal): 옴니모달로의 진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생성하는 멀티모달 기술은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를 무한히 확장한다.¹ 단순히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단계를 넘어, 소리를 듣고 비디오를 보며 텍스트로 상황을 설명하는 유기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⁴

멀티모달의 진화는 '옴니모달(Omnimodal)'을 향해 나아간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하며, 교육, 의료, 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인간-AI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핵심 동력이 된다.¹

5.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더 작게 (Cheaper, Faster, Smaller): 온디바이스 AI의 확산

인공지능의 소형화와 효율화는 거대언어모델(LLM)이 가진 막대한 자원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기기 내에서 AI가 구동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대를 연다.¹ 이는 학습 데이터의 '질'로 승부하는 소형언어모델(SLM)의 발전과 다음과 같은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가능해진다.⁹

- 양자화(Quantization): 32bit 데이터를 16bit나 8bit로 줄여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⁹
-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거대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이 물려받도록 학습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⁹

이러한 소형화는 속도 향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초개인화된 에이전트 서비스의 보편화로 이어진다.⁹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돌아가는 나만의 AI 비서가 현실화되는 것이다.¹

6.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Humanoid): 물리적 신체를 가진 지능

물리적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즉 '몸을 가진 AI(Embodied AI)'의 등장은 인공지능이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함을 뜻한다.¹ 저자는 이를 '인공지능의 캄브리아기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AI가 로봇의 하드웨어를 제어하여 물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언한다.⁹

과거의 로봇이 유압식 액추에이터에 의존했다면, 최신 휴머노이드는 전기식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더 빠르고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한다.⁹ 특히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통해 한 분야에서 익힌 물리적 기술을 다른 분야로 응용할 수 있게 되면서,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노동력을 확장하거나 대체하는 주류 기술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³

AI 6대 트렌드	핵심 정의 및 기술 요소	기대 효과 및 사회적 영향
운영체제로서의 AI	모든 SW가 AI와 연동되는 기반 플랫폼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패러다임 통합
맥락 인터페이스	검색 없는 정보 제공, 화면 공유 및 의도 파악	인지 부하 감소 및 사용자 경험 혁명
파트너로서의 AI	인간과 AI의 협업, 질문 기반의 업무 수행	업무 생산성 증대 및 편집 역량 강화
멀티모달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의 동시 처리	소통 장벽 해소 및 옴니모달 진화
소형화(SLM)	양자화, 지식 증류를 통한 온디바이스 구현	개인정보 보호 및 초개인화 비서 보편화

휴머노이드	몸을 가진 AI, 전기식 액추에이터, 전이학습	물리 노동의 자동화 및 산업 구조 개편
-------	---------------------------	-----------------------

제2장 AI 시대의 교육 혁명: 주입식 교육의 종말과 인문학의 복권

인공지능이 지식의 습득과 가공 속도에서 인간을 압도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 체계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질문받게 된다. 박태웅 의장은 이 과정에서 '주입식 교육'이라는 구시대적 유물을 폐기하고, 인간 본연의 능력인 '질문'과 '성찰'을 교육의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1. 암기 중심 교육에서 질문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박 의장은 현재의 주입식 암기 교육을 '사회가 어린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 중 하나'로 규정한다.¹² 정보가 도처에 널려 있고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시대에,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는 교육은 자원 낭비에 가깝다. 대신, 그는 주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기성세대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강조한다.¹²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최고의 질문, 궁극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다.¹² 이는 기술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의미한다.¹² 이러한 능력은 단순 반복 훈련이 아닌, 풍부한 교양과 깊은 사유를 통해서만 형성된다.¹²

2. 교양의 복권(Recovery of Liberal Arts)과 인문학적 소양

박 의장은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교양의 복권'이 오고 있다고 진단한다.¹² 풍부한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질 수 없으며,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의 질적 가치를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¹²

- **인문학의 역할:** 인문학은 인공지능이 다루지 못하는 '가치'와 '맥락'의 영역을 담당한다. 인공지능은 언어의 패턴을 분석하지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인간의 고통, 기쁨, 역사적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다.¹¹ 인문학적 훈련은 AI의 결과물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¹¹
- **비판적 리터러시:** AI가 생성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걸러내고, 오염된 데이터로 인한 차별과 편향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⁴
- **AI 리터러시의 정의:** 박 의장이 강조하는 진정한 AI 리터러시는 기술을 사용하는 법뿐만 아니라, AI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윤리적 역량을 포함한다.¹³

3. 주니어 소멸 위기와 미래 인재상

박 의장은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주니어 인력의 소멸'에 대해 경고한다.¹² 인공지능이 주니어급이 수행하던 기초적인 업무(코딩 초안, 자료 요약 등)를 대체함에 따라, 신입 사원들이 실무를 배우며 성장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미래의 인재는 '지식의 축적자'가 아닌 '지능의 조율자(Orchestrator)'가 되어야 한다. 여러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조율하여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각 단계에서 비판적 판단을 내리는 역량이 주니어 시기부터 요구될 것이다.¹¹

제3장 국가 전략의 대전환: AI 맨해튼 프로젝트와 인프라 주권

글로벌 AI 전쟁은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대항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태웅 의장은 한국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제안한다.⁵

1. AI 맨해튼 프로젝트: 한국형 소버린 AI의 구축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핵무기를 개발했던 사례에서 따온 명칭이다.⁵ 박 의장은 국내 기업들이 자본과 인력 면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대항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⁵

- **인재 결집 전략:**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계 AI 인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국가가 급여와 연구비를 전액 지원하고 파격적인 경직 허용 혜택을 주어야 한다.⁵ 조경현 교수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이 주도하고 후배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연구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 **소버린 AI(Sovereign AI)의 필요성:** 기술 주권이 없는 국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자국의 데이터를 타국에 상납하고 지불하는 처지가 된다. 이는 마치 전기를 해외에서 전적으로 사 오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다.⁵ 한국어의 고유한 맥락과 문화를 이해하는 우리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⁵

2. GPU 인프라: AI 시대의 '임장료'

박 의장은 GPU를 단순한 부품이 아닌 AI 시대의 '임장료'라고 비유한다.⁵ 현대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규모의 법칙(Scaling Law)'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이다.

- **확보 목표 및 비판:** 현재 정부가 확보하려는 수천 장 단위의 GPU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⁵ 일론 머스크의 xAI가 단기간에 10만 장에서 20만 장의 GPU를 확보한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최소 10만 장 이상의 GPU 팜(Farm)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⁵
- **국가 자산화:** 국가가 GPU 팜을 구축하고 이를 대학과 연구소에 개방하여, 연구자들이 '노트와 볼펜' 걱정 없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⁵ 실제 네이버의 사례에 따르면, 대학에 GPU를 지원하자마자 세계적 수준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은 인프라의 중요성을 증명한다.⁵

3. 인클루시브 AI(Inclusive AI)와 외교적 주도권

박 의장은 한국이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 독자적인 AI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⁵

- **글로벌 협력 모델:** 자국 AI를 갖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GPU 팜 구축을 돕고, 그들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지원하며, 함께 개발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전략이다.⁵
- **비적대적 외교:** 중국이나 미국이 자국 AI 사용을 강요할 때 생기는 경계감을 완화하고, 한국이 기술 협력의 '제3지대'로서 주도권을 쥌 수 있다는 분석이다.⁵

전략 항목	주요 주장 및 제안 내용	기대 효과 및 목표
맨해튼 프로젝트	한국계 글로벌 AI 인재 총결집, 검직 허용 및 전액 지원	기술 주권(Sovereign AI) 확보 및 인재 유출 방지
GPU 인프라 지원	국가 차원의 10만~20만 장 규모 GPU 팜 구축	연구 역량 폭발 및 기술 격차 극복
인클루시브 AI	후발 국가 데이터 디지털화 지원 및 모델 공유	글로벌 AI 외교 주도권 및 우군 확보
소버린 AI 개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소유 및 국가 자산화	해외 기술 종속 탈피 및 데이터 보안 강화

제4장 공직 사회의 혁신과 공공 AX(AI Transformation) 전략

박태웅 의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으로서, 한국 공공 부문의 디지털 수준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⁶

1. 제너럴리스트 중심 행정의 한계 지적

박 의장은 기술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대에 1~2년마다 보직을 옮기는 공무원 순환 보직제(Generalist model)가 AI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¹⁵

- **전문성 부재의 위험:**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AI 계획을 짜면 디테일을 놓치게 되고,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⁵ "과기부 공무원만 앉아서 계획을 짜면 빠뜨릴 게 엄청 많다"는 그의 비판은 현장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⁵
- **거버넌스 개편:** 공직 사회를 '때려 부수는' 수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이 결정권을 갖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⁵

2. 머신 리더블(Machine Readable) 행정과 데이터 혁명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라지만, 현재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가독성에 머물러 있다.¹⁶

- **팩스 행정의 종말:** 서류를 팩스로 요청하거나 법원에 가서 종으로 발급받는 행위는 AI 시대의 '반사회적 행위'이자 '자살 행위'이다.¹⁶ 모든 행정 데이터는 기계가 즉각적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형태(API, Open Data)로 전환되어야 한다.¹⁶
-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의 동시 추진:** 한국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¹⁴

3.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전략과 공공의 태도

AI 연산을 위해서는 방대한 클라우드 자원이 필수적이지만, 정부 부처가 스스로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서 클라우드 정책을 펴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¹⁵

- **전략적 수용:**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버리고, 국가적 차원의 계산 인프라로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¹⁵
- **현명한 구매자:** 정부는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주체를 넘어, 국산 AI 반도체나 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수요를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⁵

4.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실행

공공 부문에서의 AI 전환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AI의 효용을 입증하려 한다.¹⁷

- **소비 및 행정 편의:** 농산물 가격 분석 추천 플랫폼, 소상공인 AI 상담, 국가유산 AI 해설,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¹⁷
- **사회 안전망 강화:**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및 해양 위험 분석에 AI를 활용하여 예방 행정을 구현한다.¹⁷
- **부동산 투명성:** 부동산 등기, 거래 데이터, 국세청 정보를 통합하여 전세 사기나 허위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¹⁶

제5장 AI의 명암: 윤리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동반한다. 박 의장은 기술 발전에 매몰되어 윤리와 안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¹

1.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원칙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향을 학습하여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⁴

- **공정성과 투명성:** 인공지능 시스템은 편향된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며, 결과가 도출된 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¹¹

- 책임 있는 관리: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윤리팀을 해고하는 등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의 이익보다 인류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한다.⁴

2. 법제화와 국제 공조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이나 미국의 알고리즘 책무법안과 같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³

- 공론화의 중요성: 독일의 녹서와 백서 사례처럼, 사회 전체가 인공지능의 도입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합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³
- 지적 재산권 보호: AI가 학습한 원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잊힐 권리'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⁴

3. 노동 시장의 변화와 기본소득 논의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10~20배 향상시킨다면,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박 의장은 노동 시간 단축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¹⁸ 이미 현재의 생산력으로도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며, AI가 창출한 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¹⁸

결론: 변화의 물결 위에서 선 방향 설정

박태웅 의장이 제시하는 2025년의 모습은 희망과 공포가 공존하는 거대한 변화의 장이다. 인공지능은 운영체제로서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 것이며, 인간은 파트너로서 그 지능과 공존해야 한다.¹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는 명확하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및 인재 확보다. 'AI 맨해튼 프로젝트'와 'GPU 입장료'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⁵ 기술 주권을 잃은 국가는 식민지와 다름없는 처지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조다. 질문하지 않는 인간과 전문성 없는 관료 조직은 AI 시대의 가장 큰 리스크다.¹²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과 실질적인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인간 중심의 윤리적 항해다. 기술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차별을 방지할 윤리적 울타리를 만드는 데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¹¹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 도구를 어떻게 휘두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태웅 의장의 강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에게 가장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² 2025년은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박태웅의 AI 강의 2025 - 한빛+, 2월 16, 2026에 액세스,

- https://m.hanbit.co.kr/store/books/book_view.html?p_code=B4108549264
2. 박태웅의 AI 강의 2025. 저자 박태웅 - YouTube,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c3sDt1C9GbE>
 3. 박태웅의 AI 강의 2025 - 알라딘,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46891281>
 4. 박태웅의 AI 강의 2025 | 밀리의 서재,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4478b9dc744e4b2c>
 5. [퀴바디스 한국 AI] 박태웅 “AI 맨해튼 프로젝트 시작하자” - 바이라인 ...,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byline.network/2025/07/quo-vadis-ai2/>
 6. 공단, 'AI 전환' 드라이브...박태웅 의장 초청 특강 - 데일리메디,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2368
 7. 박태웅의 AI 강의 2025 - 교보문고,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298857>
 8. 돈 버는 공식이 뒤집혔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기 (박태웅 의장님 / 2부) - YouTube,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baAJ7sY8dbc>
 9. 박태웅의 AI 강의 2025 - Hun's story - 티스토리,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yyh911.tistory.com/738>
 10. (박태웅의) AI 강의 2025: 인공지능의 출현부터 일상으로의 침투까지 우리와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지능의 모든 것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kmi.re.kr/library/10430/contents/7151984>
 11. 박태웅(한빛미디어 의장) 인공지능 견해 분석 보고서,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heartplay.tistory.com/m/732>
 12. 이미 시작된 주니어 소멸... 10년 뒤 우리 사회에 벌어질 끔찍한 일 ...,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1xy66z46e4>
 13. [신간 소개] 박태웅의 AI 강의 2025 - 지디넷코리아,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zdnet.co.kr/view/?no=20241007160834>
 14. "디지털 전환 없이는 AI 전환도 없다"... 정부 혁신의 이중과제 [K-AI 전략] - IT조선,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9313>
 15. 박태웅 "문재인 정부 'DNA 기반 AI 강국' 부정하더니 골든타임 놓쳤다"- "탄핵으로 손 놓고 있어...용서할 수 없는 범죄" - YouTube,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JYnga5WLFw>
 16. 2025 오픈소스 페스티벌 기조강연① AI의 시대, 생태계의 시대_박태웅(녹서포럼 의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장) - YouTube,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0_384Deh5Pc
 17. 'AI로 돕는 민생' 10대 프로젝트...국방·제조 AX 추진 - 지디넷코리아,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zdnet.co.kr/view/?no=20251124103210>
 18. (2부) 한국은 AI시대에 이렇게 삼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 - YouTube, 2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AM-dCqLGGzU>